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종교철학의 역할: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험을 통하여*

김종우**

본 연구는 디지털문화의 확산과 심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이 이를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과학주의(scientism)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격적 의식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진정성 추구하고 이를 통한 텍스트의 인격성 회복이 관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추구하는 의의와 함께 그 한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적 해결로서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의 ‘방법(method)’ 개념을 과학주의 이해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과학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과제번호: 2020S1A5C2A02092965)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문계열 연구원

종교철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화가 지니는 의미: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인가?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는 보통 20세기 중엽 예수회 신부 부사(Roberto Busa)가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저술과 관련된 자료들을 IBM의 도움을 받아 전자문서화한 것으로 본다.(문상호, 강지훈, 이동열, 2016, 22)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담론으로 나타난 것은 2008년 미국의 국립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이 디지털 인문학부(Office of Digital Humanities)를 설치하면서 부터로 여겨진다.(박치완 외, 2015, 13)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결이 다르지만 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대체로 ‘인문 전산학(Humanities Computing)’이나 ‘인문 정보학(Cultural Informatics)’의 계보를 따라서 나타난 것으로서, 오늘날 점점 거시적이 되어 가는 “디지털 환경과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인문학”으로 매우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문상호, 강지훈, 이동열, 2016, 26) 물론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도 근래에 가장 강렬한 반감을 표출한 글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며, 단지 “인문학의 파생물이자 모조품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여겨진다.(박치완, 김기홍, 2015, 199)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은 왜 나타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인문학 진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로, 디지털 인문학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여파를 통해서 볼 때 불가피한 일로 여겨진다. 산업화에 이은 정보화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와 진입은 인문학에도 막강한 영향력과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 스스로 이와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

는다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다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도훈 외, 2001, 5) 이러한 주장은 학문함의 기본 단위가 ‘지식(knowledge)’이 아닌 ‘정보(information)’로 변함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던 기존의 지식이 대중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로 “대치”(김도훈 외, 2001, 42)되거나 “동치”(김도훈 외, 2001, 26)됨으로서 그동안 인문학이 수행해왔던 사회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기존의 인문학이 고도로 전문화됨으로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이나 담론의 제기 자체가 쉽지 않아졌고,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의 상호교류 조차도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지배적 현상으로서 이해되고 있다.(류인태, 2020, 366-367; 문상호, 강지훈, 이동열, 2016, 28)

둘째로,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또한 당위적인 시도로서 이해된다.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단지 또 하나의 수단이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자기이해와 세계이해의 출현을 뜻하기 때문이다.(김도훈 외, 2001, 5; 박치완 외, 2015,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회가 전혀 다른 매체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상아탑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인문학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격하시키는 것은 이 시대의 인문학자들이 가진 지배적인 편견이요 아집일 뿐이라는 비판적 의식을 디지털 인문학 진영에서는 표출하고 있다.(류인태, 2020, 368, 384, 392, 401) 이제 디지털 기술과 환경은 이미 또 하나의 ‘리터러시(literacy)’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문학 연구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 대상을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새로운 의미의 발견과 비판 담론의 제시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류인태, 2020, 371, 380, 382) 그리고 그때 인문학이 기존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제도적 인문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평적이고 열린 학문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도훈 외, 2001, 180)

셋째로, 디지털 인문학으로의 당위적 전환은 그것을 온전히 구현함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의식은 대체로 “1) 방대한 인문학적 정보를 어떻게 아카이빙(archiving) 하여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2) 인문학적 정보들 간의 관계와 의미 연계를 다루는 ‘중개(mediation)’와 시각화 등을 통해 텍스트를 실제적으로 현실화 하는 ‘재현(representation)’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박치완 외, 2015, 13-14)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인문학 내에서의 주된 문제의식은 인문학적 텍스트를 디지털화시키는 전환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묻지 않는다. 단지 “어떻게 인문학적 정보를 제대로 디지털화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인문학 진영에서의 그와 같은 소극적 대응은 기존의 인문학 진영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제기되게 만든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인문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여기에는 크게 소극적인 입장과 적극적인 입장이 있다. 첫째로, 소극적인 입장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보다는 그에 앞서 디지털 기술 문화 자체에 대한 반감의 연유를 살피고 디지털 인문학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있는 한 저자는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기계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요, “사람과 도구의 관계가 역전”되고 결국 인간이 자신이 만든 도구에 종속될 수 있는 미래적 가능성을 여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 범위와 가시성을 넘어선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게 된다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과 인간의 도구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을 통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키우고, 공감과 소통 능력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중원 외, 2017, 93-102, 121-131) 즉, 참된 ‘인문학’의 자리를 “기계의 외부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디지털 인문학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적극적인 입장은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의 일부”라거나 기껏해야 “인문학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협소한 영

역'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한 논문에서 저자들은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하려는 '디지털 제국주의자'들을 우려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기획적인 시도이자 부차적인 선택사항에 머물러야지 마치 인문학의 미래 비전이자 패러다임인 것처럼 과대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그들은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주장하는 인문학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데,(박치완, 김기홍, 2015, 199) 그곳에서 필자는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표현들을 접할 수 있었고, "(디지털 인문학의) 결실과 가치를 도매급으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박치완, 김기홍, 2015, 194) 곳곳에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저자들을 만나게 된다.(박치완, 김기홍, 2015, 189-194, 199-200, 208) 그렇다면 이러한 비난에 가까운 비판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추구가 '과학주의'로 경사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그들이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실증주의와 함께, 후기 실증주의의 가면을 쓴 과학주의가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방법을 배제하게 된다면 인문학에 재앙(anathema)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스미티스의 글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치완, 김기홍, 2015, 198)

현행 디지털 인문학은 오히려 문화 연구의 주류였던 인문학적 방법을 버리고 오히려 '과학'이 되고자 한다. [...] 이는 과학적 방법의 효과가 철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모든 영역의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일컫는 과학주의에 다름 아니다.(박치완, 김기홍, 2015, 198)

이와 같은 우려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보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단순한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인문학 진영에서 깊이 숙고해야 할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참여해 오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에 대한 구체적

인 경험의 빛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격적 의식 속에 부지불식간에 편견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과학주의에 대한 종교철학적 이해를 도모해 보고, 이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종교철학의 역할을 논해 보고자 한다.

II.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실례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 사업은 “1880년부터 1942년까지 한국에 파견되었거나 만주, 일본 등 주변 지역에서 한국 선교와 관련된 활동을 펼친 개신교 선교사들의 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편지를 수집하여 통합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 82개 기관 181개 컬렉션에 약 1만 건이 소장되어 있는 선교사 편지들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자료 5천 건에 대한 DB화를 1단계 3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5천 건을 2단계 3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원문, 번역문 및 해제를 DB화 하여 공개하고 소장 기관과 협의하여 원본 이미지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고자 한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2020, 2-4)

본 연구의 단계는 크게 1) 자료 조사와 수집, 2)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와 구축, 3) 학술논문의 발표 및 성과물 출판의 세 단계로 수행된다. 1) ‘자료 조사와 수집 단계’에서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소장 기관을 방문하여 촬영 및 스캔을 통해 원문 자료를 확보”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본 이미지의 온라인 활용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2)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와 구축 단계’에서는 “자료 검토와 전사, 번역 및 해제 작성을 하게 되며, 해당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분류 및 유형화함으로써 DB 항목 설계의 기초 정보를 마련”한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대상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식의 아카이브를 설계하고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원문 이미지 편집, 원문과 번역문 및 해제의 입력 및 전자텍스트(XML) 작성이 수행된다. 이후 관련 정보를 활용한 시간적 관계망의 재현까지를 잠정적 목표로 하고 있다. 3) ‘학술논문의 발표 및 성과물 출판의 단계’에서는 국내 및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대회에 패널을 구성하여 발표하며 성과물의 단행본 출판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화된 연구의 산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개하고 국내외 학계로의 연구 성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2020, 4-5)

앞서 상술했듯이 지난 1년간 필자는 본 연구사업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서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제 막 2차년도 연구에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연구의 수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에 제시했던 1차년도 수행 목표들도 모두 충실히 완수되었다. 하지만 전체 연구사업의 목표나 진행과는 별도로, 본 연구사업은 한 사람의 인문학도로서 필자의 학문함에 대한 이전의 관점을 뒤흔들었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학문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전체 연구의 단계들과 흐름 속에서 기존의 인문학적 텍스트들이 디지털화 된 산물로 전환되는데서 오는 충격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기술된 연구단계의 전체 과정 중에서도 위키(Wiki) 안에서 전자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인문학적 텍스트가 디지털 세계와 만나는 전환의 극적인 경계가 됨으로서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본 연구사업을 통해서 디지털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연구의 대상은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이다. 이 자료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각자 맡은

사업의 경과 및 이와 관련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모국의 선교부나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안에는 당시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풍속, 언어, 문화, 제도,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선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찰이 담겨 있는 편지로서 “선교사들이 각자 맡은 임무의 진행 경과 및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인물들, 당시 한국의 사회 풍속 및 문화적 특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활동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 및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1942년 일제에 의해 전원 본국으로 추방되기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본국에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들은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당시 한국 사회의 변모와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담고” 있다. 예컨대, “당시 근대문물의 도입 과정과 이를 둘러싼 조선의 현실적 여건들, 당시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상과 이에 대한 서구인의 시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게 해주며,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당시 선교사들이 직접 체험한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인 것이다. 이는 선교사들의 선교가 “학교와 병원의 설립, 근대 제도의 창설, 기술 자문, 학술과 출판사업 등 근대 문물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2020, 8-11)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텍스트를 디지털화 하는 과정은 때때로 필자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이 기존의 텍스트로부터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느낌과 문제의식은 토대 연구로서의 본 연구사업의 전체적인 목표와는 별도로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문제의식의 발로이지만, 앞으로 연구가 종료된 이후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이 본 연구사업의 디지털화된 생산물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대한 성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텍스트가 가진 다학제적이고 입체적인 함의가 디지털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료의 전환을 어떤 관점에서 점검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인문학적 텍스트가 내포한 의미는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할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러한 전환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물음들이 연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연구팀은 이와 같은 다학제적 함의를 가진 인문학적 자료를 적절하게 디지털화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사업 내에도 여러 전공 분야들 간의 상호 참조와 협업을 통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인력도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신학, 한문학, 문헌정보학, 국문학, 인문정보학, 구약학, 상담학, 종교철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키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집단지성을 오히려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김지선, 장문석, 류인태, 2021, 398-399)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집단지성의 발휘가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적 텍스트가 위키에서의 다양한 전공자들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화 됨으로써, 기계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더욱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길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1년 간 본 연구의 개별 연구자들이 텍스트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공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체감하고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근래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문적 패러다임 전환의 이념이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필자 자신도 연구의 초기에 디지털 인문학의 반대 진

영에서 드러낸 것과 유사한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필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에 참여한 몇몇 인문학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물론 연구의 초기에 필자는 ‘디지털 인문학’의 이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많은 인문학도들 역시 그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매우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과학자들이 과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누구보다도 과학적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 자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과도 같다. 물론 실제적인 디지털화 작업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수행된다면 더욱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원문을 전사하고 번역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으며 해석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화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연구에 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가? 필자는 지난 1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하여, 디지털 인문학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의 통찰을 따라서 그것이 ‘과학주의’의 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 소통과 공유 및 협력을 핵심 역량으로 하는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때 관련 연구자들이 과학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인문학’이 그 안에 있는 과학주의적 편견을 정화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인문학이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인문학’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오직 과학주의적 편견이 해

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의 외부에서 제기되는 그와 같은 문제의 핵심인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면, 디지털 인문학이 보다 나은 학문적 시도가 되기 위한 긍정적 계기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 과학주의와 그에 대한 종교철학적 이해: 버나드 로너간의 ‘방법’ 개념을 통하여

그렇다면 ‘과학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과학주의를 다룰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소중한 재능으로서의 ‘과학’ 또는 ‘과학적 정신’과 이 시대의 편견이자 폐기되어야 할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주의’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황희숙, 2004, 8) 과학주의는 근대 문명 안에서 과학기술의 엄청난 세속적 성공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이자 “과학의 신화화”(황희숙, 2004, 4-9)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으며, 17세기 유럽의 과학혁명의 시기로부터 유래하여 19세기의 실증주의와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 및 콰인(Willard Quine)의 ‘자연화된 인식론’을 거쳐(한상기, 2013, 283-189) 근래에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윌슨(Edward Wilson)의 사회생물학 중심의 통섭(consilience)의 시도(Wilson, 1999)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나 대중적으로나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과학철학자인 조인래는 과학주의의 유형을 가장 세심하게 분류한 학자로 생각되는데, 그는 과학주의를 “과학의 성과나 방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적 적용을 추구함에 있어 과학의 무제한적,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옹호하는 견해”로 정의하면서, “자연과학 분야(특히 물리학)에서의 획기적 성공을 여타 과학 분야나 과학 밖의 분야들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과학적 성공을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리한다.(조인래, 2006, 2) 그러면서 그는 과학주의를 여러 유형으로 정형화하여 제시한다. 먼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관련하여 과

학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과학주의 곧 “인식적 과학주의(epistemic scientism)”를 과학의 (1) 독점적 우월성과 (2)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견해로 구분한다. 그리고 과학의 우월적 지위를 담보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자연과학의 성공이 가능해진 요인을, 과학의 방법에서 찾는 관점에서 성립하게 된 “방법론적 과학주의(methodological scientism)”를 제시한다. 이는 인식적 과학주의의 일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분리하여 논의될 만큼 독자적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3) “자연과학(특히 물리과학)의 방법이 여타의 과학 분야들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4) “과학의 방법이 인간의 모든 지적 탐구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5) “자연과학(특히 물리과학)의 방법이 인간의 모든 지적 탐구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구별한다. 더 나아가, “과학의 성공이 한계를 가지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서는 (6) “과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과 (7) “과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곧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과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구별한다.(조인래, 2006, 2-3)

이제 앞서 상술한 과학주의의 정의, 맥락, 유형에 이어서 그에 대한 종교철학적 이해를 도모해 보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를 도모하는 이유는 디지털 인문학의 이상을 보다 온전히 구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과학주의를 견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종교철학의 역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종교적 함의를 가진)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화라는 문제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를 숙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마주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텍스트로의 전환이라는 불연속적인 측면에서 살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 텍스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정신의 역동으로서의 방법’(Lonergan, 1979, 3-13)이라는 연속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방식이다.

먼저 우리가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위키

안에서 전자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텍스트성의 질적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질적으로 전혀 달라 보이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문학 안에서도 심연의 의미와 초월적 가치에 천착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본다면 디지털 언어로의 전환을 통한 종교적 언어의 ‘정보’로의 대치 또는 동치가 과학주의의 만용과 맹목, 곧 “과학이 제 주제를 모르고 만물을 아우르는 통합학문을 자처하거나 과학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토를 넘어서서 의미의 세계와 초월의 세계를 침략하고 그 세계들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과 같이 다가올 것이며, 결국 인간의 생활세계는 식민한 과학적 언어에 의해 식민지화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강원돈, 2014, 110) 이러한 우려는 앞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반대 진영에서 제기된 비판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그것으로 충분한가? 물론 그것은 디지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의 윤리적 반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와 앞으로의 미래를 사는 많은 이들이 이미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능동적이고 책임적인 행위자로서 그 안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애써 나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만약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과학의 방법’의 문제를 인간의 정신적 역동의 관점에서 깊이 숙고한 로너간의 이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는 보통 과학의 방법을 한 과학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지침들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로너간에게 있어서 방법은 “축적적이고 점진적인 결과들을 산출하는 반복적이며 서로 관련되는 작용들의 규범적 패턴”(Lonergan, 1979, 4)으로 정의된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자신이 산출한 과학적 지식의 개연성을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산출한 지식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수행했던 방법이 그에게 그와 같은 확실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너간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에 의하면 ‘방법’이란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인 동시에 인간 정신의 역동 그 자체이다. 로너간은 특히 인간의 인지적 작용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통하여 방법의 이념을 정립하였는데, 그것은 앞서 상술된 ‘작용들의 규범적 패턴’이 경험함(experiencing), 이해함(understanding), 판단함(judging), 선택함(deciding)이라는 인간의 인지적 작용으로서 반복되고 서로 관련되면서 축적적이고 점진적인 결과들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로너간의 이론적 설명이나 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함 자체를 스스로 생각함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자연스럽게, 또는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어하며 일어나고 있는 인지적 작용을 객관화함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숙달하고 적용하는 ‘자기 적절화(self-appropriation)’의 과정은 로너간 연구자들조차도 미로를 헤매게 만드는 것으로서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어쨌거나 로너간은 이와 같은 과제의 첫 출발을, (1) “자신의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선택함을 경험”하고 (2) “자신이 경험한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선택함의 통일성과 관계성들을 이해”하며 (3) “자신의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선택함을 경험하고 이해한 실재를 확인”하고 (4) “경험되고 이해되고 확인된 자신의 경험함, 이해함, 판단함, 선택함을 자생적인 관계성 속에 내재하는 규범들을 따라서 작용할 것을 선택”하는 사중의 과제로서 제시한 바 있다.(Lonergan, 1979, 14-15) 여기서 로너간이 제시하는 인간의 심성 속에 내재된 규범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적절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의식의 층위들 곧 경험적, 지성적, 이성적, 책임적 층위에서 요청되는 “주의집중하라(Be attentive)”, “지성적이어라(Be intelligent)”, “이성적이어라(Be reasonable)”, “책임적이어라(Be responsible)”는 초월적 금언들로서, 로너간에 의하면 “사람의 진정성(authenticity)이란 그에 대한 요청 앞에서의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의 여부에 달려 있다.”(Lonergan, 1979, 9, 20, 104)

우리는 여기서 로너간의 ‘방법’ 개념을 통하여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본 과학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디지

텔 인문학 연구자가 연구의 과정에서 인간 정신의 역동으로서의 방법을 망각하고 인간 정신의 외적 표출이자 과학적 실천으로서의 방법만을 ‘과학’이라 여기는 환원주의적 과학 인식으로 고착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고착은 과학의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그것을 산출한 인간의 정신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대상화된 의식으로 고착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과학적 산물이 현 시대의 지배적인 과학주의적 편견 속에서 인간 정신과의 관계적/생성적 연관성을 박탈당하고 마치 하나의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물화되는 사태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주의적 편견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텍스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치 사람의 인격성과 독립적인 ‘디지털 텍스트’가 산출되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호도하지만, 인간 정신의 역동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텍스트성의 어떠한과는 별도로 인간 정신과 텍스트의 관계적/생성적 연관성은 단절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적 작업을 예로 들자면, 텍스트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나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 모두 경험, 이해, 판단, 선택의 인지적 작용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연구자들은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때 텍스트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텍스트를 단순히 축적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고 때때로 그것은 무의미한 기계적 작업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순간도 연구자 자신의 역동적 정신성을 구현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진지한 학문함의 현장으로서 진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과 수용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에게 그것이 단순한 기계적 작업처럼 여겨진다면 이는 과학주의적 편견이 부지불식간에 그의 인격적 의식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때 텍스트는 그저 정량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죽은 정보들의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본질에 대한 1장에서 논의된 생각을 생각해보자면, 인문학적 텍스트가 디지털화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과 두려움으로 호

들갑을 떠는 것이나 마치 모든 인문학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대립되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학주의적 편견의 영향 하에서 텍스트 환원주의와 환원주의적 과학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는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텍스트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의하여 존재하며, 텍스트가 디지털화된다고 할지라도 인간 정신의 역동성과의 관계성/연계성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텍스트의 존재 양식과는 별도로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은 회피될 수 없다. 어떤 이들의 걱정처럼 ‘기계’가 또 다른 주체성을 부여 받고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IV. 디지털 종교의 물결과 디지털 신학의 출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라는 과제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인문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관련 텍스트들의 디지털화 현상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30년을 2020년으로 당겨 왔다”는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기술 환경이 종교계 안으로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의 교인수가 감소했으며 감소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신재식, 2021.11.2)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배적인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지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그와 더불어 종교의 새로운 실천 환경으로서의 ‘디지털’에 대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물론 기존에 사이버 문화의 출현에 대한 종교

계의 대응으로서의 글쓰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이따금씩 수행되기도 하였다.(최인식, 2001; 김흡영, 2006; 김영한, 2007) 하지만 특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배나 묵회와 같은 종교 활동들, 또는 종교 공동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심한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강성열 외, 2020; 경동현, 2020; 안덕원, 2020; 포스트코로나와 묵회연구학회, 2020; 주종훈, 2021) 다시 말해서, 비야흐로 ‘디지털 종교(Digital Religion)’ 현상이 우리의 눈앞 가까이 출현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의 ‘디지털 신학(Digital Theology)’적 작업을 위한 예비적 논의들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김정형, 2021)

하지만 국외의 경우에는 디지털 신학에 대한 연구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 지난 2014년에 영국의 더럼 대학교가 ‘디지털 신학을 위한 연구센터(The CODEC Research Centre for Digital Theology)’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석사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홈페이지의 소개 글에서 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신학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신학은 사회의 디지털화와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들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다.”(Centre for Digital Theology, 2021.11.8.)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 신학은 밀려오는 디지털 종교의 물결들 가운데서 샘솟는 것으로서, 이 물결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논하고 있다. 첫 번째 물결은 ‘기술적 물결(descriptive wave)’이다. 이는 “인터넷에 기반 한 종교적 네트워킹과 의례 및 공동체 발전의 초기 중요성을 문서화하려는 이른 시도들과 특히 사례 연구 분석과 디지털 민족지학(Digital Ethnography)에 중점을 둔 작업을 포함”한다. 두 번째 물결은 ‘범주적 물결(categorical wave)’이다. 이는 (1) “온라인 활동의 산물을 그룹화할 수 있는 범주, 분류체계 및 표지들의 개발” (2) “다른 사례 연구들에 대한 비교 분석의 증가” (3) “기존 종교 활동의 온라인 송출(religion online)’과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종교 활동(online religion)’ 사이의 다름과 웹1.0에서 웹2.0을 넘어 웹3.0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세 번째 물결은 ‘이론적 물결(theoretical wave)’이다. 이는 “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찾는, 이론적이고 해석학적인 탐구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네 번째 물결은 ‘수렴하는 물결(convergent wave)’로서 “세 번째 물결의 끝에서 나타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더욱 깊은 물음을 묻는” 물결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고 성숙해진 이전의 물결들이 서로 다른 측면들을 함께 가져오는 보다 풍성한 연구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Phillips, Schiefelbein-Guerrero, & Kurlberg, 2019, 34-35)

이제 이와 같은 ‘디지털 종교’ 현상의 물결들 속에서, ‘디지털 신학’이 출현하게 되며 지난 2019년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자들이 게재한 한 논문에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디지털 신학을 모두 4가지 층위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hillips, Schiefelbein-Guerrero, & Kurlberg, 2019, 37-40) (1) 첫째 층위에서 디지털 신학(DT1)은 “전통적인 학문적 주제로서의 신학을 소통하거나 가르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디지털 신학은 이미 신학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들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교사들의 유튜브화를 추동했으며 이는 신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 둘째 층위에서의 디지털 신학(DT2)은 “디지털성(digitality) 또는 디지털 문화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신학적 연구”를 말한다. 디지털성은 우리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체 방식을 바꾸었으며, 신학 역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곧 신학 연구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기계적 읽기(distant reading)를 수행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종교적 실천 및 데이터의 시각화를 포함”하고 있다. (3) 셋째 층위에서의 디지털 신학(DT3)은 “디지털성/디지털 문화에 대한 의도적이고, 일관되며, 반성적인 신학적 기반의 참여”이다. 이 층위에서 디지털 문화는 우리가 그 안에서 신학을 수행하는 컨텍스트가 된다. 여기서 “신학과 디지털 문화는 상호 반성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신학의 자리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신학함과

신학적 연구 대상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요, 디지털 문화 역시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넷째 층위에서의 디지털 신학(DT4)은 “신학적 윤리에 비추어 디지털성에 대한 예언자적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앞선 층위에서의 디지털 신학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신학의 상호 반성적 관계 속에서의 현재적 참여라면 이 층위에서 이들은 “신학적 윤리에 기반하여 차후 디지털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이들은 “디지털 신학과 함께 디지털 종교 현상이 보여주는 기존의 물결을 넘어서는 제5의 물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디지털 신학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Phillips, Schiefelbein-Guerrero, & Kurlberg, 2019, 40-41)

-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학과 종교적 믿음 및 실천에 대한 연구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
- 2) 신학과 종교적 믿음 및 실천에 대한 연구 안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 3)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디지털 문화의 영향을 기술하고 맥락화 하는 것.
- 4) 신학, 특히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견지에서 디지털 향방을 결정하는 것. 다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 5) 신학적 윤리의 측면에서 디지털성에 대한 예언자적 재평가를 제공하는 것.
- 6) 컴퓨터 과학자들이 신앙으로 정향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표현을 디자인하도록 촉구하는 것.

필자는 디지털 종교의 물결 속에서 출현한 디지털 신학의 이와 같은 목표에 공감하면서, 그러한 신학적 통찰들이 일반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내부로부터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종교철학의 한 역할로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디지털 신학이 ‘디지털 종교 현상에 대한 신학적 대응’ 혹은 ‘디지털성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을 뜻한다면, 종교철학은 신학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관점에서 소위 ‘메타버스 시대’라는 거시적인 사회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광범위한 디

지텔 사회로의 이전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지털 사회로의 이전을 예감하게 해주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아우르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종교철학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끝맺고자 한다.

V. 디지털 텍스트의 인격성 회복을 위한 종교철학의 진정성 추구하고 그 의미

오늘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논하는 연구자들은 이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인간의 외적 인지 체계는 물론 인간의 ‘자기 이해’가 극적으로 전환되면서,(신승환, 2019, 169-180) 그에 따라 다양한 인간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박일준, 2021, 123-124) 필자도 그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앞서 “사람을 사람답게” 이루려는 인문학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텍스트들이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과학주의적 편견의 위험성을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상고해 보았으며, 디지털 신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종교철학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할에 대한 배경을 상술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종교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철학이 궁구하는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종교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 종교에의 귀속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죽음의 가능성으로서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힘에 대한 초월적 동경을 본성으로 하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일반 규정을 뜻한다.(정재현, 2009, 100)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유한성에 대한 의식’과 ‘초월에 대한 지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이를 구

현해 내기 위해서는 존재를 무화(無化)시키는 힘을 거스르고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요청되므로, 이 힘에 대한 근본적인 동경을 자신 안에 품고 있다는 종교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이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지배적 편견이자 유사-종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과학주의에 대해서도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Schoeck, 2018, 215-216) 말하자면, 앞서 상술한 종교적 인간에 대한 정의가 형식적 규정이라면, 과학주의는 현 시대의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이 동경하는 ‘무한한 힘’의 출처가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내용으로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종교철학의 역할이 종교적 인간의 어그러진 욕망으로서의 과학주의를 고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한한 힘의 출처로서 여겨지고 있는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과학(기술)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기술)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필자는 종교철학적 입장에서, 종교적 인간의 자기이해에 있어서의 유한성 의식과 초월지향성의 관계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인간에 대한 규정 안에서 말하는 ‘유한성 의식’과 ‘초월지향성’이 본래 동태적인 사건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상화는 그것을 ‘유한’과 ‘초월’이라는 형식으로 정태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때 ‘유한’과 ‘초월’은 형식논리상 모순관계로서 설정되므로 이는 인간의 자기이해의 터전에서 체험하는 실존적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과학주의와 연계된 대상에 대한 고도의 집착과 거짓 평안의 추구로 나타나게 된다. 필자는 이것이 앞서 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가 자신의 정신적 역동성을 망각하고 대상화된 텍스트성의 어둠에만 천착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종교철학의 역할은 연구자가 정태적 자기이해로부터 탈피하여, (동일한 사태의 양면을 기술하고 있는) ‘유한성 의식’

과 ‘초월지향성’이라는 역설적 관계 안에서의 동태적 자기이해를 추구해 나가도록 종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그때에도 무한한 힘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자기 집착과 대상 집착의 견고한 연계가 느슨해지고 과학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재현, 2014, 112-114) 이를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철학은 모든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안에서 “진정성 있는” 물음을 묻고, 연구자들이 정태적 자기의식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종용하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유한성 의식과 초월지향성이 하나의 사태로서 얽혀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정신이 “물음을 물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문자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종교철학이 하나의 큰 물음을 그 속에 품은 인간의 자기이해를 지향해 나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 안에서의 물음이 그칠 때 과학주의는 또 다시 ‘인간 정신의 역동으로서의 방법’으로부터 ‘과학적 실천으로서의 방법’으로 과학의 이념을 환원시키고, 그에 따라 디지털 인문학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격적 의식 안에서 텍스트의 인격성, 곧 인간 정신과의 관계적/생성적 연관성을 박탈하고 텍스트를 또 다시 하나의 대상으로 환원시키게 될 것이다. 그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텍스트성의 질적 전환이라는 사태는, 마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게 만들거나, 마치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한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예찬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설사 모든 것이 디지털적인 세상으로 전환되어간다 할지라도, (로너간이 말한 바) 인간 심성에 내재된 사중의 규범들로 인하여,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은 환경이나 텍스트성의 변화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디지털 인문학이 텍스트의 탈인격화와 비진정성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선도하는 종교철학의 역할이 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역할이 디지털 인문학 내에서도 자체적인 시도가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바 역동하는 인간의 정신성에 대한 민감한 반성과 대상에 함몰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성찰을 추구하는 종교철학적 접근은, 소위 “총체적 디지털화”(박승억, 2011, 174-175) 속에서도 그 안에 침잠되지 않는 ‘유한성 의식’과 ‘초월지향성’의 동태적 자기이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재현, 2019, 7-11) 그때 종교철학은, 디지털 신학의 목표와 공명함으로써, 디지털 문화와의 상호 비판적 대화와 예언자적 재평가를 통하여, 과학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텍스트의 탈인격화와 비인간화라는 악순환을 끊고, 진정성 추구를 통한 텍스트의 인격성 회복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공유와 협업의 실천을 위한 첫 단추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류인태, 2020, 394) 텍스트의 참된 공유와 협업은 인격성과 진정성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자들이 지식보다는 주로 정보를 다루는 와중에 자칫 횡횡하기 쉬운 과학주의적 편견에의 경사는, 정보의 피상적 공유와 이를 추인하는 정량적 평가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 보다는 기계화된 단순 노동으로서 자신의 디지털 인문학적 실천들을 스스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도외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디지털 인문학적 작업의 인문학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스스로를 옥죄는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리가 더욱 온전한 디지털 인문학적 이상에 다가가기 위하여 유사-종교화된 과학주의를 극복하고 텍스트의 인격성과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철학의 역할과 의미를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성찰을 통해 더욱 진정한 디지털 인문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종교철학, 디지털 인문학, 과학주의, 진정성, 텍스트 인격성

[참고문헌]

- 강성열, 김은혜, 신재식, 이진형, 장운재, 정기묵, 정원범, 황홍렬 (2020).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회심 - 신학·목회·선교의 과제. 서울: 도서출판 동연.
- 강원돈 (2014). 과학주의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29, 107-140.
- 경동현, 박문수, 이미영, 황경훈 (2020). 팬데믹 시대의 가톨릭교회: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한국천주교회에 관한 조사보고서.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 김도훈, 박찬길, 이재경, 이필렬, 조지형, 최순옥, 홍윤기 (2001).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사회평론.
- 김영한 (2007). 21세기 사이버, 생명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정형 (2021). 디지털 세계의 출현에 대한 창조신학적 성찰. 한국조직신학논총, 63, 165-197.
- 김지선, 장문석, 류인태 (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371-419.
- 김흡영 (2006). 현대과학과 그리스도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류인태 (2020).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365-407.
- 문상호, 강지훈, 이동열 (2016).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박승익 (2011). 총체적 디지털화와 인문학의 미래. 인문과학, 48, 169-186.
- 박일준 (2021). 연장된 인간, 연장된 문제: 팬데믹 시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장된 인간의 문제. 인문과학, 122, 123-163.
- 박치완, 김기홍 (2015). 디지털인문학, 인문학의 창발적 변화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38, 185-219.
- 박치완, 김기홍, 유제상, 세바스티안 뮐러, 강소영, 구모니카, 김성수, 김운재, 김평수, 박현태, 위군, 조성환, 한주리, 홍종열 (2015). 디지털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꿈꿀 권리.
- 신승환 (2019).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116, 167-196.
- 신재식 (2021.11.2.). 한국개신교회에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와 메타버스(Metaverse).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702.
- 안덕원 (202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기독교 예배-전통적인 경계선 밖에서 드리는 대안 예배를 위한 제언. 복음과실천신학, 56, 45-82.
- 이중원, 신상규, 구본권, 상제, 천리화, 김일환, 이도길, de Fremery, W., 김상훈 (2017). 디지털시대인문학의 미래. 서울: 푸른역사.
- 정재현 (2009). '종교적 인간'에서 '신앙하는 인간'으로 - 종교신학에 대한 파니카의 비판

- 을 통하여. 신학사상, 146, 99-130.
- 정재현 (2014). 이상과괴를 통한 종교해방 - 니시타니의 공(空)과 포이어바흐의 투사를 잇
뎀으로써. 신학사상, 166, 104-141.
- 정재현 (2019). 이상과 신앙 - 종교적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인래 (2006). 철학 속의 과학주의: 과학철학의 자연화. 과학철학, 9(2), 1-34.
- 주중훈 (2021). 디지털 예배의 목회적 신학적 고찰과 실천 방향. 복음과 실천신학, 60,
45-81.
- 최인식 (2001). 예수, 그리고 사이버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2020).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2020). 2020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계획서.
- 한상기 (2013). 20세기 철학에서 과학주의: 과학적 경험주의와 자연화된 인식론. 범한철학,
69(2), 281-305.
- 황희숙 (2004).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위. 대동철학, 26, 283-301.
- Centre for Digital Theology (2021.11.8.). <https://www.dur.ac.uk/digitaltheology>.
- Loneragan, B. J. F. (1979). Method in Th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김인숙, 이
순희, 정현아 옮김 (2012). 신학 방법. 서울: 가톨릭출판사.
- Phillips, P., Schiefelbein-Guerrero, K., & Kurlberg, J. (2019). Defining digital theology:
digital humanities, digital religion and the particular work of the CODEC
research centre and network. Open Theology, 5(1), 29-43.
- Schoeck, H. (2018). Scientism and Values. New York: Forgotten Books.
- Wilson, E. O. (1999).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최재
천, 장대익 옮김(2005). 통섭 :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북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문화의 확산과 심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이 이를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과학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서 진정성 추구를 통한 텍스트의 인격성 회복이 관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추구하는 의의와 함께 그 한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적 해결로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과학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철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에게 지난 1년간의 연구 경험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문함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디지털 인문학’의 이념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자들에게 그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과학주의적 기획에 의한 인문학의 변질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인문학의 한 분야인 종교철학적 연구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그때 인간 정신과의 연관성이 단절된 환원주의적 과학 인식으로의 고착화와, 텍스트가 그것을 산출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정신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대상화된 의식으로의 고착화는 곧 과학주의를 뜻한다. 하지만 텍스트성의 질적 전환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책임성은 회피될 수 없으며 텍스트 인격성의 망실은 곧 과학주의의 결과인 것이다. 한편 디지털 종교 현상의 출현은 디지털 신학을 촉발하였고 이들은 “신학적 윤리에 비추어 디지털성에 대한 예언자적 재평가”를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종교철학적 접근은 인문학과 신학의 교차 영역으로서 디지털 신학의 목표와 공명하면서 텍스트 인격성 회복을 위한 진정성 추구를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의 자신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공유와 협업의 정신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종교화된 과학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종교철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ole of Philosophy of Religion in the Research of Digital Humanities: Through the Experience of Building a Digital Archive of Protestant Missionary Letters from Korea(1880-1942)

Kim, Jong Woo (Yonsei University)

My research experience in building a digital archive of Protestant missionary letters from Korea(1880-1942) over the past year gave me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concept of “digital humanities.” However, there was a debate about the nature of the subject, and the issue was whether it was derivative of scientism. Applying Bernard Lonergan’s understanding, the place where the “digitization of humanistic texts” becomes a problem of scientism lies in the reductive recognition of the “method (of science)” and the depersonalization of the “text.” But authenticity as a human potential makes it impossible to avoid its responsibility even when we think the digital text exists by itself. In other words, the right question is not whether to use scientific language, it’s the authenticity of the human being and the personality of the text. Accordingly, resonating with the goals of digital theology, philosophy of religion intends to position “the pursuit of authenticity for the recovery of text personality” as its role in the research of digital humanities.

[Keywords] Philosophy of Religion, Digital Humanities, Scientism, Authenticity, Text Personality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5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kimjongwoo@yonsei.ac.kr